# 작황 부진에…이달 농산물 도매가 더 오른다

## 농촌경제硏, 배추 전년동월比 121.8%↑ 전망
## 무·당근·건고추·양파 등도 일제히 상승할 듯

지난달 농산물 물가 상승률이 8.5%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에도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일 '농업관측 8월호 엽근채소', '농업관측 8월호 양념채소' 보고서를 통해 이달 배추·무·감자·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도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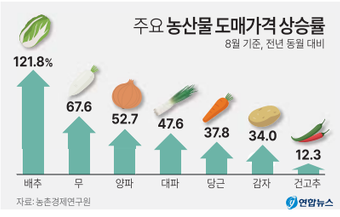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배추의 8월 도매가격은 10㎏에 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1.8% 오르고 평년 대비로는 57.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추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평년에 비해 9.5% 각각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9월에도 여름 고랭지 배추 출하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비싸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의 경우도 출하량 감소로 인해 배추 도매가격이 10㎏당 1만4천160원을 기록해 지난해 7월보다 157.4%, 평년보다 87.5% 비싼 수준이었다.

특히 기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여름 배추 작황이 부진해졌고 이에 따라 배추 10㎏당 가격은 7월 상순 9천910원, 중순 1만4천770원, 하순 1만7천330원으로 급등했다.




8월 무 도매가격은 약 20㎏ 기준 1만9천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8월보다 67.6%, 평년에 비해서는 22.6% 각각 비싼 수준이다.

무 가격 상승세 역시 출하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9월 무 가격도 여름 무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더 비쌀 것으로 전망했다.

8월 당근 도매가격 역시 약 20㎏ 기준 3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8%, 평년 대비로는 11.4% 각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건고추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 상승률이 8.5%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에도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

이달 건고추 600g(화건 상품 기준)의 도매가격은 1만3천500원으로 작년보다 12.3%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평년(1만2천750원)보다는 5.9% 높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건고추 생산량이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19.9%, 8.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

양파 도매가격도 ㎏(상품)당 1천350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52.7%, 48.8%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파 역시 도매가격이 ㎏(상품)당 1천900원으로 지난해보다 47.6% 오를 전망이다.

조사팀은 "고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8월 경기지역의 대파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자의 도매가격도 20㎏(수미)당 3만9천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34.0%, 26.5% 상승할 전망이다. 노지 봄감자 생산이 감소한 탓으로, 정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조사팀은 예상했다.

/연합뉴스

## 광주경총, 광산고용센터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광주 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 지역 중장년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전직 지원 서비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지난 2015년 9월 금남로5가 소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했으며 방문 구직자들의 구직상담 및 일자리 매칭,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해 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의 경력설계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성과 평가 결과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문을 연 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는 2명의 직업상담사가 파견돼 광산지역 구직자 및 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수희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한전 등 130곳 대상

## 노동계 "권한·자격 확대" vs 경영계 "노사 갈등 우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가 시행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실시됐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노동이사제는 이날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이때 노조위원장이 직접 본인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추위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 방식이다.

선임된 노동이사는 기업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기재부 또한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노동계는 기재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자칫 노사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 농어촌公,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

한국농어촌공사는 4일 나주 본사에서 KT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중개거래 실시협약'을 체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42개소의 54㎿에 대한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한다.

공사가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126개소 94㎿ 규모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거래소 거래 및 500㎾ 이상 한전 거래 태양광발전소 42개소(54㎿)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전력거래 플랫폼에 수용함으로써 국가 전체 전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제도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 예측하고 당일 일정범위의 오차율 이내로 이행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공사는 KT와의 협업을 통해 AI 기반의 안정적인 예측값을 생성하고 최적의 수익성을 확보해 수익금을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직접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의 5%를 마을발전소 무상 건설이나 마을 공동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추진해 오고 있다. /기수희 기자

## 투데이 경제

### aT '고추장 체지방 개선' 국제학술지 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고추장의 체지방 개선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국제 영양학회지 '뉴트리언츠'(Nutrients)에 게재됐다고 4일 밝혔다.

aT는 전북 순창군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한아름 원광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과 협력해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피실험자 60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을 이용해 인체 효능평가를 한 결과 고추장을 섭취하면 내장지방 함량이 줄어드는 점을 증명했다. 고추장은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

전통 고추장의 체지방 개선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됐지만 주로 캡사이신 등 고추의 특정 성분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고추장 자체의 효능에 관한 연구논문이 해외 학술지에 등재된 것은 2016년 이후 두 번째다.

김춘진 aT 사장은 "이번 논문 등재를 계기로 고추장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 광주·전남중기청, 전자책 무료 대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전자도서관을 개관, 전자책 5만8천여권에 대한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도서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고 자기계발, 경영개선 등 스스로 혁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PC 등을 통해 경제·경영·인문·과학·예술·생활 등 전 분야의 도서 5만8천여권을 대여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포털 '소상공인마당(sbiz.or.kr)'에 가입돼 있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의 전자도서관을 선택 후 읽고 싶은 전자책을 선택·대여하면 되며 회원 1인당 월 10권 이내로 1권당 2주간 대여가 가능하다. /양시원 기자

### 한국은행 목포본부, 中企 추석자금 지원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4일 "추석을 앞두고 종업원의 임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추석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운전자금대출로 기존 C2자금과 코로나19 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건설업 영위기업, 대출기간 1년 초과 운전자금 등이 해당된다.

은행의 대출 취급 기간은 오는 8일부터 9월8일까지로 업체당 대출 취급 한도는 6억원 이내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며 지원 방식은 은행이 취급한 대출액의 50% 이내에서 해당 은행에 연 1.00%(변동 가능) 저리로 지원한다.

/목포=정해선 기자